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홀수형) 해설

[정답]

1.⑤ 2.① 3.⑤ 4.③ 5.④ 6.③ 7.① 8.④ 9.④ 10.⑤
11.② 12.③ 13.③ 14.④ 15.④ 16.③ 17.① 18.② 19.① 20.③
21.② 22.② 23.③ 24.⑤ 25.④ 26.④ 27.② 28.① 29.③ 30.②
31.② 32.④ 33.④ 34.① 35.① 36.② 37.① 38.② 39.③ 40.④
41.⑤ 42.④ 43.⑤ 44.⑤ 45.③ 46.⑤ 47.② 48.⑤ 49.① 50.④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를 통해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조선 시대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생과 그의 아우는 관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생이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어찌 된 건지 마당에 못 보던 향아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김생이 그 이유를 묻자, 아우는 염색업을 시작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말에 김생은 화를 내며 아우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관직에 있어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후한 녹봉을 받고 있건만, 너는 어찌 과욕을 부리느냐? 네가 이렇게까지 하여 재물을 취한다면, 네 과욕 때문에 본래 이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김생의 이런 성품은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바가 큼니다.

어느 날 아궁이 밑에서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한 어린 김생은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금입니다! 제가 금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금은 네 물건이 아닌데 어찌 이리 기뻐하느냐. 네가 그 금을 취한다면 그로 인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길 터이고, 그 마음이 끝내는 너 자신을 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 금을 원래 자리에 묻고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1. 추론적 사고(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 추리)

정답해설 : 화자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에서, 김생은 동생이 관직에 있어서 살기에 불

편함이 없는데도 염색업을 부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과욕을 부린다고 꾸짖고 있다. 그 과욕 때문에 본래 염색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는 김생의 이런 성품이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생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금을 발견한 김생에게 그 금으로 인하여 탐욕이 생기면 그 마음이 너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해가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이야기에서 형이 재물을 탐하는 아우를 꾸짖은 것일 뿐, 재물로 인해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② 형의 말은 부업까지 하면서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었다. ③ 이 이야기에서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에피소드는 없었다. ④ 형과 아우는 관직에 있었으며, 아우가 물질 획득의 수단으로 한 일은 염색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철새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활용하는 비행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중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이동 시간대가 다릅니다.

활상하는 철새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펼친 채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상승 기류는 지면이 달궈지고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낮에 정점에 이릅니다. 따라서 활상하는 철새는 보통 상승 기류가 많은 한낮에 이동합니다.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며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수평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승 기류와 부딪히게 되면 수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겠죠. 따라서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대개 해가 진 뒤의 밤 시간에 이동합니다. 또 끊임없이 날갯짓을 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밤에 열을 식히기가 쉽겠지요.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모두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비행 고도를 바꿉니다. 바람은 지표면으로부터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부는데요, 새들이 이동하다 역풍을 만나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낮은 고도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순풍을 만나면 바람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높은 고도를 선택하겠죠.

2. 사실적 사고(강연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는 철새를 비행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언

급한 후, 그 중에서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 하는 철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활상하는 철새’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펼친 채 이동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많은 낮에 이동하고, ‘날개치기 하는 철새’는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며 수평으로 날아가는데, 이 때 상승 기류와 부딪히면 수평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동한다고 하였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 하는 철새’는 모두 역풍을 만날 때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낮은 고도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③ 열을 식히는 데 유리한 밤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이다. ④ 날갯짓을 하며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이다. ⑤ ‘활상하는 철새’는 상승 기류를 이용할 수 있는 낮 시간대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3.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 생: 선생님,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려고 우선 문항부터 만들어 봤어요. 고칠 데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래? 어디 보자. 잘 했는데, 몇 가지는 고쳐야겠네. 먼저, 이 설문 문항은 네가 조사하려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이라는 주제와 거리가 멀구나. 이걸 기기의 사용 능력을 묻는 것이어서, 윤리 의식과는 거리가 멀지.

학 생: 음, 그렇겠네요.

선생님: 이 문항도 같은 문제점이 있네. 게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응답해야 할지 곤란하구나. 만일 너한테 ‘당신은 그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건지 알 수 없겠지?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으려면 설문지의 답항에 묻는 대상의 종류와 기준을 다 제시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학 생: 그렇군요. 묻는 게 무엇인지,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혼란스럽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이 문항에는 성격이 다른 물음이 묶여 있네. 물음마다 대답할 내용이 다른데, 한 문항으로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문항으로 나누어서 한 문항에 하나씩 물어야 해.

학 생: 아. 정말 한 문항에 두 가지 내용을 섞어서 묻고 있네요.

선생님: 또 이 문항은 응답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묻고 있네. 이렇게 응답자 본인의 경험 여부를 직접 물으면, 솔직하지 않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 생: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서 학생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기 위해 만든 설문 문항을 검토해 달라고 교사에게 요청하고 있다. 교사는 설문 문항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해 주고 있다. ⑤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설문 주제에 맞고, 두 가지 내용을 섞어서 묻고 있지 않으며, 응답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⑤는 선생님이 지적한 설문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컴퓨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묻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이라는 설문 주제와 거리가 먼 문항이다. ② 이용 가격에 대해 묻는 것은 설문 주제와 거리가 멀고, 무엇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문항이다 ③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응답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④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물음이 섞여 있는 문항이다.

4~5.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동아리 활동비 배정에 대해 봉사반과 발명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동아리 대표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일정한 단계와 조건을 정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에 따라 발언해 주시고, 학생회 배심원들께서는 잘 듣고 평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사반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봉사반 토론자: 동아리 활동비는 학생회 예산의 일부이므로 되도록 많은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봉사반은 회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성과에 따라 봉사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발명반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발명반 토론자: 동아리 활동비는 실질적 성과를 많이 올린 동아리에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발명반은 여러 차례 학생 발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으니, 우리 발명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지원돼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봉사반 토론자, 상대방 입론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봉사반 토론자: 소수 학생만 만족하는 활동 결과를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발명반 토론자, 상대방 입론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발명반 토론자: 저도 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올바른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봉사반 여러분들이 좋은 품성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죠.

사회자: 봉사반 토론자 주장하십시오.

봉사반 토론자: 우리는 ‘나눔의 공간’이라는 봉사 활동 소식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전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동아리에 더 많은 활동비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발명반 토론자 주장하십시오.

발명반 토론자: 축제 때 우리 동아리에서 ‘생활 속의 발명’이라는 행사를 했더니, 평소에 발명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입상 실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아리에 더 많은 활동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4. 비판적 사고(토론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동아리 활동비 배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고 봉사반과 발명반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회자는 먼저 일정한 단계와 조건에 따라 발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별 조건에 따르면 ‘입론’ 과정에서 근거 제시를 통해 각 동아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반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례 제시를 통해 각 동아리의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발명반 토론자의 반론을 들어보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활동 성과로 주장하는 봉사반의 입론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성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 달라’는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명반 토론자는 입론 단계에서, 발명반이 여러 차례 학생 발명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발명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봉사반 토론자의 반론은, 소수 학생만 만족하는 발명반의 성과를 실질적인 성과라 할 수 없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인성을 기르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④ 봉사반 토론자는 ‘나눔의 공간’이라는 봉사 활동 소식지를 만들어 많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발명반 토론자의 주장은, ‘생활 속의 발명’이라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 제시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추론적 사고(공통적인 전제의 파악)

정답해설 : 봉사반 토론자는 봉사반이 그동안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 왔으니, 이러한 활동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활동비를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발명반 토론자는 실질적 성과를 많이 올린 동아리에 활동비를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학생 발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발명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두 토론자 모두 동아리의 활동 성과에 따라 활동비를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활동비를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동아리 활동비 지출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우선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대상에서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여행에 관한 글감을 연상하는 것이다. 자릿수를 통해 위치가 다르면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추출했다. 이를 여행에 적용하면 여행하는 사람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이나에 따라 같은 대상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여행을 안내하는 사람이나에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답] ③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청소년 우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글을 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찾아내야 한다. 2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주로 공공시설 이용 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그 혜택이 제한적이라 했다. 그리고 1의 인터뷰 내용에서 공공시설 이용 시 대학생들은 할인 혜택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민간 시설의 우대 혜택이 늘어나길 바란다 고 했다. 그런데 ①에서는 공공시설의 우대 규정이 민간 시설에 비해 미비하다고 했다. 자료만 볼 때 공공시설과 민간 시설의 우대 규정을 비교할 수는 없다. 오히려 2의 자료를 볼 때 공공시설의 우대 규정이 일부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기에 민간 시설의 우대 규정보다 좋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3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앞으로 교통수단 이용에서 우대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①에서는 우대 혜택이 교통수단 이용에 편중되어 있다고 문제를 잘못 지적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1의 인터뷰 내용에서 청소년증 제도가 지닌 한계를 알 수 있다. 또한 1과 2의 자료에서 우대 혜택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③ 1의 인터뷰 내용에서 대학생들은 할인 혜택이 없다고 했다. 2의 자료를 보더라도 18세 이하 청소년조차 할인 혜택이 제한적이라 했다. ④ 4의 자료에서 알 수 있다. ⑤ 3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린 IT 운동은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과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항목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 전환’의 내용을 넣는 것 또한 어색하다. 상위 항목이 ‘3. 정책적 차원’이라 했으므로 주체를 정부로 생각한다면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답] ④

9.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하다’의 서술어는 ‘채색’에 대응되는 것이며, ‘밑그림’에는 대응될 수 없다. ‘밑그림’은 그리는 것이기에 현재 상태로 서술어를 각각 두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잘못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두다’의 의미이기에 ‘배치’가 아니라 ‘방치’가 적절하다. ② ㉠의 ‘그래서’는 ‘건물 뿐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황폐해 보이기에’이기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야 인과 관계가 자연스럽다. ③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로 수정해야 한다. ⑤ 추진하는 주체는 바로 제안서를 쓰는 학생들이기에 피동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표현해야 자연스럽다.

10.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와 주민들에게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⑤에서 학생들에게 마을에 대해 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 준다는 내용이 첫째 조건을, 주민들은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둘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어느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첫째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③ 둘째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④ 첫째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11. 어휘·어법 (인칭 대명사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그쪽’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 ‘㉡당신’ 역시 같은 대상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내’는 ‘㉡나’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 ‘㉠내’는 ‘가’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 ‘㉡나’는 은/는 앞에 쓰인다. ‘내’가 ‘나의’의 줄인 말로 쓰이는 경우는 ‘내 물건’과 같은 사례에서이다. ③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나의 형제자매들’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그쪽’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아버지’를 ‘당신’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 ⑤ ‘㉥당신’을 ‘자기’로 바꾼다면 뒤에 이어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의 ‘당신’이 높임법에 맞는 것이다.

12. 어휘 · 어법 (어휘의 적절한 구사)

정답해설 : ㄱ과 ㄴ의 문장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은 ‘공부를 하는 척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시늉’의 대상은 ‘장사꾼’의 행동이 아니라 공부인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⑤ ‘조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부추김’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13-15] 언어, ‘옛 문헌의 문장 부호’

지문해설 : 이 글은 옛 문헌에 사용된 문장 부호의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설명문이다. 오늘날의 문장 부호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옛 문헌의 부호들로, 마침표나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던 ‘ㅇ’[구점(句點)과 두점(讀點)],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될 때 쓰였던 ‘○’, 주석을 달기 위해 사용했던 ‘【 】’,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였던 ‘ㄴ’, ‘々’, ‘へ’ 등을 소개하고 각각의 기능이나 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제]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13. 사실적 사고(중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옛 문헌에 어떤 부호들이 쓰였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던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의 경우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했지만, 설명의 초점은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에 맞추어져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가 현대적으로 수용된 것에 관한 내용은 다섯째 문단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현대에도 문장 부호가 쓰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 문헌에도 문장 부호가 쓰였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지는 하나,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의의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14.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은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들이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수고를 덜기 위해 다시 적지 않고 부호로 처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쇄본보다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 글의 내용도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려면 부호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풀이하여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② 글자나 어구의 반복을 나타내므로, 문장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③ 동일함을 표시하는 부호가 있다고 해도 띄어쓰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5. 비판적 사고(유사 사례와의 비교 판단)

오늘날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를 이용하듯이, 옛 문헌에서는 ‘【 】’를 사용하여 보충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셋째 문단에 따르면, <보기>의 ㉠처럼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를 생략했다고 했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반응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오늘날의 쉼표(,)에 해당하는 것이 두점이다. ② 오늘날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것이 구점이다. ③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는 ‘-’로 대체했다고 했다. ⑤ 새로운 단위의 예문 같은 것이 시작될 때에는 ‘○’을 사용했다고 했다.

[16~19] 예술,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양상’

지문 해설: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양상을 시대별로 소개한 글로 음악은 시대별로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작곡가들은 (감상자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음이 기억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반복의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돌림 노래와 유사한 입체적인 모방의 방식으로, 바로크 시대는 반복과 변주를 통한 장식적인 변주 형태로, 고전 시대는 주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악장의 사이사이에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는 형식적 반복의 형태로 반복의 기법을 구현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시대별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 기법의 특징

16.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해설: 둘째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한 ‘모방’을 통해 반복 기법을 활용했다. 변주의 방식을 활용한 것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은 다섯째 문단, ②는 첫째 문단, ④는 셋째 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⑤ 첫째 문단과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반복 기법이 단순한 동요에서부터 복잡한 소나타까지 널리 사용된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 해설 : ‘모방’의 방식은 돌림 노래 형식으로 여러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을 노래하는 반복 기법을 말한다. 돌림 노래처럼 동일한 선율로 시작한 후에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의 노래를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에 의한 통일감과 다른 선율에 의한 독립성을 보여주는 구조가 ‘모방’의 양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①은 A가 시간 차를 두고 반복되면서 각 성부가 A의 뒤에 각각 B, C, D와 같은 독립된 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방’의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성부의 A 뒤에 각각 독립적인 B, C, D가 이어지고 있어 성부의 독립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A가 시간 차를 두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 성부가 동시에 A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성부2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부1과 성부3의 독립성이 떨어진다. ④ 성부1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성부1, 3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8.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보기>는 앵무조개의 껍데기가 통일과 변화의 미감을 준다는 내용으로 동일한 형태의 반복에서 통일을, 형태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에서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양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에서 언급한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서로 다른 주제가 대조되는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통일과 변화의 아름다움과는 다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복의 미감은 <보기>에서 언급되었듯이 르네상스 건축에서도 느낄 수 있다. ③ 통일과 변화의 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문과 창은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추구한 바로크 시대의 장식적 변주 양식과 유사하다. ④ 바로크 성악의 저음 성부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에서도 엿볼 수 있다. ⑤ 통일과 변화를 통한 조화를 추구했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양식과 르네상스 건축의 유사성을 잘 이해한 반응이다.

19. 추론적 사고(어휘의 이해와 활용)

정답 해설 : ‘사이사이’는 ‘사이’라는 어휘가 반복되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또는 틈이 있는 데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걸음걸음’은 ‘걸음’을 반복함으로써 ‘걸음을 걸을 적마다, 걸음마다’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사이사이’에 담긴 ‘여러 개의 사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

될 수 있듯이 ‘걸음걸음’도 ‘여러 걸음들’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나머지는 ‘-마다’와 결합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대강들’(×), ‘바싹들’(×), ‘멀리들’(×), ‘가득들’(×)처럼 복수적 의미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20-23] 현대소설 - 김승옥, ‘역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60년대 도시화된 삶의 형태에 대해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김승옥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서, 현대인의 짝 짜인 기계적인 일상생활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외화(外話, 겉 이야기) 속에 내화(內話, 속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소설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외화와 내화는 모두 1인칭 시점(외화 - 1인칭 관찰자 시점, 내화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 소설은 질서와 가풍을 중요시하는 양옥집과 가난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창신동 집이라는 두 공간을 대립시켜 현대 문명사회의 허구성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자기 세계에 대한 작가적 지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줄거리] 액자 소설인 이 소설은 어느 공원에서 우연히 듣게 된 어느 사내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다.(외화) 창신동 빈민가에 살던 나는 어느 날 깨끗한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기게 된다. 이 집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가풍을 중시하는 노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엄격한 질서와 가풍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인물이다. 나는 이곳의 엄격한 질서와 규칙에 낯설어 하면서 창신동에서의 가난하지만 생기 넘치는 삶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의식에 가장 또렷이 떠오르는 인물은 서씨인데,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 한밤중에 동대문에 올라가 무거운 돌을 옮기는 역사(力士)였다. 자신만의 내밀한 삶과 세계를 추구하는 서씨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이 집의 기계적인 획일성에 대해 나름의 반발을 도모해 보지만, 하숙집의 생활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내화)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 일상 생활에 대한 풍자

2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인 나는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서씨의 삶과 엄격한 질서와 가풍을 중시하는 현재 하숙집 인물들의 삶을 대비하고 있다. 즉, 서술자인 나는 과거의 하숙집과 현재의 하숙집의 대비를 통해 각각의 공간에 속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면서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② ‘그 집’에서의 회상 장면에서 ‘이 집’에서의 현재 장면으로 전환된 것 외에는 장면 전환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④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동대문’, ‘그 집’, ‘이 집’에서 모두 서술자는 ‘나’이므로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

21. 추론적 사고(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서씨가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서씨는 역사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 조상들로부터 ‘힘’이라는 무형의 재산을 ‘가보’로 물려 받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힘’은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저 공사판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경제적 보수를 보장하는 정도에 불과해졌다. 그래서 서씨는 공사판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데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남몰래 동대문에 올라 돌을 옮기고 그 돌을 보면서 선조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함으로써 서씨가 선조의 영광을 보존한다는 것이 ㉠에 담긴 의미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는 서씨(저 사내)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③ ㉢은 창신동 집에 있을 때 안주에의 동경을 느끼던 내가 새로운 하숙집에 와서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④ ㉣에서 피아노 소리가 그친 시간을 확인해 보는 ‘나’의 행동에는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 ⑤ ㉤에서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했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서 이 집안의 규칙이 ‘나’의 행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의 추리)

정답해설 : ㉠, ㉢, ㉤, ㉥은 모두 ‘이 집’의 할아버지가 정한 엄격한 질서와 관련이 있는 시간들이며, 특히 ㉢과 ㉥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다. 반면에 ㉡는 그런 질서와 관계 없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때를 가리킨다. [답] ②

23.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작가 김승옥이 추구한 새로운 사실성에 대해 언급하며 [A], [B]에 나타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에 대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자들은 [B]에서 서씨 가게의 내력을 통해서 서씨가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다는 이야기에 실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작가가 서씨의 내력을 밝힌 것은 [A], [B]에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 서씨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A]에 나오는 ‘금고만 한 돌덩이’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이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눈에는 사실적인 소재로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동대문’을 낯선 배경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대문’이라는 배경이 독자들의 실감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모습을 변형하는 수단이지만 그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A]에 나타난 서씨의 면모를 신성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⑤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서씨의 ‘돌덩이 옮겨 놓기’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서씨의 행위가 사실이 아닌 환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4~27] 사회, ‘창조 도시의 근본 동력과 환경에 대한 조명’

지문 해설 : 창조 도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창조 도시를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문화적 환경과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창조 도시를 만드는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견해와 창조 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글쓴이는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창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창조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주제] 창조 도시를 만드는 근본 동력과 창조 환경의 중요성

24.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마)의 중심 화제는 ‘창조 도시 건설의 선행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는 창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답] ⑤

25.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보기>의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연구 기관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 기관과 지역 산업체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B시의 상황을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시가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A시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B시에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경제 침체가 제조업의 퇴조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A시는 제조업의 비중이 큰 도시라는 특성을,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B시는 창조 계층과

연구 기관이 풍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26. 사실적 이해(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해설 : (가)에서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창조 도시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 창조 산업이 미래 예측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마)에서 창조 도시가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을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27. 추론적 이해(어휘의 이해와 활용)

정답 해설 : ‘창출하다’는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지어냄’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⑥는 ‘만들어 내는’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②**

[28-33]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가) 한용운, ‘님의 침묵’

작품해설 : 이 시는 임이 떠나 버린 슬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한, 또는 혼자서 독백을 하는 듯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경어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이 시는 임이 떠난 것을 자각하면서 시작된다. 1~4행에서 임과의 이별은 화자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5~6행에서 그 슬픔이 드러난다. 하지만 7~8행에서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된다. 그리고 마지막 9~10행에서는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의 침묵’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화자는 임이 떠나가 버렸고 현재 침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임이 생생히 살아 있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윤희 사상이라는 불교적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국 상실의 시대적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 김광규, ‘나뭇잎 하나’

작품해설 : 이 시는 겨울이 되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발견한 소멸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이 시에서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1~2연에서 언

젠가는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후, 3연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4연에서 저마다 생성되었다가 끝내 소멸해 버리고 마는 나뭇잎을 보면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

(다) 작자미상, ‘춘면곡(春眠曲)’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즉 상사(相思)의 정(情)을 노래한 평민가사이다. 한 서생(書生)이 봄날 야유원(野遊園)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춘흥(春興)을 나눈 후 이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별로 인한 한(恨)과 원망의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 꿈에나마 임과 재회하여 즐거웠지만, 꿈에서 깨자 다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이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다룬 다른 시가들과 달리 남자가 겪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주제] 임과 이별한 괴로움을 잊으려 애쓰는 한 남자의 심정, 임에 대한 상사(相思)의 정(情)

28. 비판적 사고(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굳고 빛나던 옛 맹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등 과거에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낙엽이 지던 때’ 등 과거에 미처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는 자연의 변화가 표현되긴 했지만 그것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다)에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 없다. ④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는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은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부분이다.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에 ㉡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문득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 ㉡ 모두 시상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느낌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은 사실과 관념이 뒤섞인 표현이다.

30. 비판적 사고(읽기 읽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차디찬 티끌’은 임이 떠난 충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임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가)의 화자가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임이 떠났다고 해도 임과의 인연이 깨진 것은 아니다. (나)의 ‘새벽 서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이므로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첫 번째 ‘아아’는 임이 떠난 것(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나)의 두 번째 ‘어화’도 임이 곁에 없는 상황(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31.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보면 한용운의 「반비레」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고, 「나의 노래」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을 만나 깊이 교감(소통)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는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님에게 들리는’ 것이 초점이므로, ‘산과 들을 지나서’라는 표현만 보고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임이 떠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의 노래이다.

32. 비판적 사고(감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시가 아니다. 따라서 4연에서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1, 2연에서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면서 나는 ~었다’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는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골짜기(1연)’→‘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라는 부사는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부사로서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났다가(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소멸)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에서 ‘조각달’이나 ‘잘새’는 ‘오동’, ‘제비’, ‘나비’와 마찬가지로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헤어진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므로,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④

[34-36] 과학,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지문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이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공룡 발자국의 형태, 길이,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형태를 토대로 발자국의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 공룡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발자국의 길이를 통해 공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폭 거리를 통해서 발자국의 주인이 어떻게 보행하는 공룡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주제]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3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종류를,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크기를, 보폭 거리로부터 보행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토대로 공룡의 특성이나 당대의 기후, 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공룡 발자국에 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공룡의 분포, 서식지 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은 글의 내용과 상관성이 적은 부제이다. ④ 공룡 발자국 형태를 통해 발자국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나와 있을 뿐이다. 글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⑤ 공룡 골격 화석이 아니라 발자국 화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B는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B가 초식 동물인 용각류에 속하는 공룡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A를 보면 앞쪽에 세 개의 발가락이 있으며 뒤꿈치는 뾰족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각류의 발자국 형태이다. 수각류는 육식 공룡이다. 따라서 A와 C의 공룡이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 자료 왼쪽에 건열이 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③ <보기> 자료에서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과 함께 새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다. ④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한다. 뒷발자국 길이가 B는 평균 30cm이고, C는 평균 36cm이므로 B는 h값이 120이고 C는 144이다. ⑤ B에는 모양이 서로 다른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함께 있으므로 B의 주인은 4족 보행 공룡이다. 그러나 D는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자국 주인이 2족 보행 공룡이다.

3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상대적 보폭 거리는 $[SL/h]$ 이다. A와 D는 발자국 길이가 같으므로 h값도 100으로 동일하다. 반면에 A의 보폭 거리(SL)는 230cm이고 D의 보폭 거리는 150cm이므로 A와 D의 상대적 보폭 거리는 각각 2.3과 1.5이다. A는 2.0 이상 2.9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행 상태가 빠른 걸음 상태였을 것이고, B는 2.0 미만이므로 보통 걸음 상태였을 것이다. **[답] ②**

[37-39] 시나리오,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각색한 시나리오다. 조세희의 소설은 19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지문은 영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을 교차편집의 방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주제]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3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95에서 인부들이 담벽을 허물고 마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난쟁이 식구들

은 태연히 앉아 말없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인부의 대장 눈짓에 따라 인부들은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데 즐거운 낮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꺼워하다’는 ‘마음속으로 기쁘게 여기다’는 의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영수는 말없이 앞만 본다고 했다. 영수가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영수와 영호가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제시된 상황을 보면 가족 모두가 영희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불이가 ‘얼굴은 왜 다쳤니.’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영호는 얘기가 복잡하다며 덕분에 고기를 얻었다고 했다. ⑤ 우철은 영희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시를 서툰게 쓰는 모습을 보고 직접 고기를 잘라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철의 태도에 대해 영희는 약간 화가 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38. 추론적 사고(영화의 장르적 특성 이해)

정답해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고 했다. 이는 담장 밖이 아니라 담장 안에서 바라본 시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카메라의 위치는 담벽 안쪽이며 이 시선은 인부들의 시선이 아니라 불이 가족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 카메라의 시선은 바로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다.

3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불이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주 플롯’이 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우철과 영희의 이야기가 ‘부 플롯’이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편집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94의 장면은 몽타주 기법으로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플롯과 부 플롯이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④, ⑤ <보기>에서 유사성과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두 장면의 유사성은 ‘고기’이며, 대조점은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이다.

[40-42] 인문, ‘집단 수준의 인과’

지문해설 : ‘집단 수준의 인과’라는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보이는 두 주장을 대비한 글이다. 상이한 두 관점은 각각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다’라는 입장과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입장이다. 전자는 집단 수준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스트레스와 병이라는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제시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글쓴이 자신의 주관은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글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주제]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에 대한 관점의 대비

40. 사실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라고 보는 관점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 둘을 대비하면서 스트레스와 병을 예로 들어 가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상반된 두 관점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서 그칠 뿐, 내용을 종합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②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자를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두 관점에서 각각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⑤ 서두에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하고, 철학자들은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설명한 글로, 상식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41.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집단 수준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독립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쪽에서도 하나의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여러 요인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요인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리할 수는 없다. ② 사람들은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했다.(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③ 첫째 단락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와는 반대로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하여 집단 수준의 인과를 도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집단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라고 보는 쪽의 견해와는 맞지 않은 말이다.

42. 추론적 사고(생략된 전제의 추리)

정답해설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수적인 요인이 있다면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갖는 필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기>의 (가)에 제시된 여러 요인들 중에는 필수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다. (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려면 다른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전제로 하면 되는데, <보기>의 (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

므로, ㉠에 바로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좋은 씨앗이 아닌데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의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 ② 물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이나 병충해로 인한 요인은 개별자 수준 인과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집단 수준 인과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결론과는 무관한 것이기도 하다. ③ (가)에 제시된 영화네의 사례는 경험적인 것이므로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 게다가 (나)의 결론과 상충되기도 한다.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에 들어가면 결론에 맞지도 않다.

[43-46]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의 원리'

지문해설 : 컴퓨터 동영상 파일은 대부분 수십만 장의 화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압축한 결과물이다. 이 글에서는 화질의 차이 없이 동영상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제거하는 것이 그것인데, 본문의 문단 구조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이다.

[주제] 컴퓨터 동영상 압축 기술의 세 가지 원리

43. 비판적 사고(독자들의 반응)

정답해설 : 본문의 정보를 바르게 이해한 반응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먼저, 셋째 문단의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이라는 대목에서 '변환된 성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문단의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을 저장한다',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등에서 '변환된 성분'의 제거 정도에 따라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넷째 문단의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통계적 중복' 원리가 '변환된 성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 크게 줄일 수 있다.'에서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겠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⑤의 '변환된 성분'과 관련이 깊은 것은 둘째와 셋째의 원리이며, 이들 각각에서는 변환이 이루어진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동영상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면 간 중복'은 이전 화면과 이후 화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며, '화면이 복잡함' 경우는 화면 내부의 정보를 따지는 '화소 간 중복'과 관계된다. ② 셋째 문단에 따르면,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진다고 하였다. 따라

서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는 화소의 개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③ 화면 간 중복은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하다는 내용을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화면이 연속된다면 화면 간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여도 같은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 화소 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셋째 문단에 따르면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소의 중복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화면과의 관계를 알 수 없어 화소 간 중복을 따질 수 없다고 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화면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중복은 ‘화면 간 중복’이다.

44. 추론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정답해설 : ㉠이 지닌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고, ㉠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추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수분)은 우유에서 전지분유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며, 전지분유는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유’를 ‘원래의 정보’라고 한다면, ‘수분’은 ‘필수적이지 않은, 없어도 되는 정보’, ‘전지분유’는 ‘압축된 정보’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분’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⑤의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 즉 필수적이지 않아서 제거해도 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하나의 화면’은 변환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모든 화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분’의 비유적 의미와 거리가 있다. ② ‘동영상의 화질’은 그 화면에 제거해도 되는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우유의 수분 함유량’으로 비유될 수 있다. ③ ‘원래의 화소 값들’은 원래의 우유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으로 비유될 수 있다. ④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는 우유로 치면, 수분을 제거하기 이전과 이후의 각각의 우유 성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이전 화면’에 별, 사각형, 원, 육각형, 팔각형이 들어 있고, ‘현재 화면’에 같은 도형들이 들어 있는데, 다만 그 배치가 달라져 있다. 형태가 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셋째 문단에서 말하는 ‘한 화면 안에서 화소 값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선’을 제외하면 변화도 거의 없다. 반면 <보기>의 (나)는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같은 화면 내에서 세부적인 명암의 차이가 크므로 ‘한 화면 안에서 화소 값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면 간 중복의 정도’는 두 개의 화면이 거의 비슷한 (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는 (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46. 어휘·어법(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㉔의 ‘지는’은 ‘얼룩’과 결합하여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의미하며, ‘생기다’와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㉕의 ‘장가를 들었다’의 ‘들다’는 ‘~(생활)을 시작하다’, ‘~의 처지에 놓이게 되다’ 등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문맥적 의미가 ㉔와 거리가 있다. **[답] ㉕**

[오답피하기] ㉑ ‘파문이 일었다’의 ‘일다’는 ‘없던 현상이 생기다’를 뜻한다. ㉒ ‘발자국이 나’의 ‘나다’는 ‘어떤 대상에 형체 변화가 생기다’를 뜻한다. ㉓ ‘구멍이 생겨’의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뜻한다. ㉔ ‘흙이 가서’의 ‘가다’는 ‘생기다’와 의미가 같다.

[47-50] 고전소설, 작자 미상, ‘박씨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패배감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창안된 군담 소설의 하나이다. 그러나 청나라에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 당시의 치욕을 되갚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병조 판서 이시백의 아내인 박씨 부인은 도통한 경지에 이른 인물로 청나라의 계략을 미리 알아차리고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시백과 박씨 부인의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상공이 박 처사와 언약을 하고 금강산을 찾는 장면이다.

[주제] 박 처사의 딸과 이시백의 혼인(작품 전체 주제 :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47.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상공은 박 처사의 딸과 자신의 아들 시백의 혼사를 허락할 때,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재상가에서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했느냐며 다그칠 때,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상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㉒**

[오답피하기] ㉑ 박 처사는 상공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존분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을 보고 혼인을 청한 것이다. ㉓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도 모르는 집안’이라 반대한 것이다. ㉔ 초동들은 상공이 묻는 말에 박 처사에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다. ㉕ 이시백은 아버지 상공의 뜻을 따라 혼인을 하기 위해 금강산을 따라 왔다. 이시백이 돌아가자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박 처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8. 추론적 사고(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해설 : 시백이 부친을 위로하며 고사를 인용한 것은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쓸쓸함’은 고사에서 한 무제가 겪은 감정이지 현

재의 시백이나 상공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택, 극히 불가하오나, 아니하오면, 하나이다’에서 극진한 겸양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② 부인은 ‘혼인은 인륜대사’라는 한문 구절은 인용하며 혼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좌우 산천 바라보니’의 시선은 바로 인물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풍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시냇물, 두견성의 청각적 묘사를 통해 박 처사를 찾지 못해 애가 타는 상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말한 수직적 사고는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했다.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궁하지 못하는 것은 계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이러한 수직적 사고 때문이 아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금강산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50. 어휘 · 어법(한자성어에의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상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혼인을 치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박 처사를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강산에 마냥 있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란 의미이다. ②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접는다는 의미이다. ③ 기회를 놓쳐 시기가 지나갔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⑤ 인간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힘들기에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